옥정호 상생협의체, 갈등 넘어 상생으로

민간위원 용역태스크포스팀 운영 등 실질적 참여
관계기관 협력으로 취수구 변경, 조류경보제 확대

전북도는 지난 15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옥정호 상생협의체 4차회의를 개최했다.

정읍시와 임실군, 유관기관, 전문가, 민간대표 등 13명이 참석한 이번회의에서는 옥정호 녹조원인조사 용역을 수행할 용역사와 협의체 간 용역 추진 방법, 일정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옥정호 녹조원인조사 용역은 지난 3월 상생협의체 1차회의 안건으로 선정돼 수면관리자인 수자원공사 섬진강댐 지사(지사장: 김철한)에서 용역비 2억 9천만원을 확보했고, 11월 제안서 평가를 통해 최종 용역사가 선정됐다.

협의체는 용역 시작부터 용역을 통해 마련된 대책이 이행되기까지 관계기관이 적극 협조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섬진강 유역과 옥정호의 오염원 기초조사를 통해 녹조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오염원별·기관별 최적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데 힘을 모을 계획이다.

또한, 도내 각계 전문가들인 상생협의체 민간위원들은 녹조용역태크스포스팀을 별도로 운영하며 용역 자문, 의견제시 등을 수행할 예정으로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읍시가 요청했던 조류경보제 운영지점 확대 건에 대해서도 그간 진행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전북지방환경청에서 보고했다.

정읍시는 올해 8월 옥정호 내 상수원 취수지점을 기존 운암취수구에서 칠보발전취수구로 변경했고, 도와 전북지방환경청은 변경된 취수구와 연계되는 조류경보제 운영지점을 검토하고,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그 결과, 조류경보제가 시행되는 2025년 5월부터는 기존 지점과 옥정호 내 1지점 등 2개 지점을 운영할 예정으로, 녹조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선제적 대응을 통해 더욱 안전한 식수원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11월, 정읍과 임실, 개발과 보전 사이의 첨예한 대립으로 시작된 옥정호 상생협의체는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한 논의를 통해 수질보전, 관리를 위한 관계기관의 공동 노력과 협력방안 마련, 더욱 안전한 식수원 공급을 위한 대책 마련 등 갈등을 넘어 상생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신기현 위원장은 "옥정호 녹조원인조사 용역 등 선제적 관리대책을 마련한 것이 올 한해 최고의 성과이다"며 "양시군 상생발전을 위해 옥정호 상생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관계기관과 전문가들이 2024년에는 수질관리 대책을 마련하는데 온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강해원 환경녹지국장은 "전북도는 2024년 정읍-임실 상생발전할 수 있는 협력사업을 발굴해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양 시군에 적극적인 사업발굴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도는 지난 15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옥정호 상생협의체 4차회의를 개최했다. 정읍시와 임실군, 유관기관, 전문가, 민간대표 등 13명이 참석한 이번회의에서는 옥정호 녹조원인조사 용역을 수행할 용역사와 협의체 간 용역 추진방법, 일정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전북도 하반기 안전신고 우수자 선정

신고실적 우수한 35명 등 총 45명 인센티브

전북도가 일상 생활 속 위해요소 예찰 등 안전신고를 통해 안전개선에 기여한 도민을 대상으로 안전신고 우수자 선정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5일 전북도는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3년 하반기 안전신문고를 통해 안전신고한 신고자 중 신고실적이 우수한 35명과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한 위험개선 우수 신고자 10명을 선정했다.

신고실적 우수자는 안전신고가 처리(수용 또는 일부수용)된 경우 안전신고 마일리지 1점, 만족도 조사에 응한 경우 1점이 적립되며, 안전신고 마일리지가 많은 순을 기준으로 평가해, 올해 하반기에 1,130건을 신고한 도민이 최우수로 선정됐다.

위험개선 우수 신고자는 도내 14개 시·군으로부터 34개 신고사례를 추천받아 도로 파손, 도로 위 장애물, 전신주, 도로 부대시설, 배수로, 소방 안전, 어린이 놀이시설 등의 위해요소들에 대한 안전신고 건 중 인명·재산 피해 예방 및 위험개선 효과가 큰 10건을 선정했다.

신고실적 최우수로 선정된 1명에게는 50만원, 우수로 선정된 3명은 30만원, 장려 31명 10만원 금액의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하며, 위험개선 우수 선정자 중 최우수 1명은 30만원, 우수 3명 20만원, 장려 6명 10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이 지급될 예정이다.

전북도는 생활 속 위험요소나 재난징후 등에 대한 도민들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하고 안전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우수 안전신고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2024년에도 안전신고 포상금제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석 달간,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요인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며, 대설·한파·화재·산불 관련 위험요인 발견 시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면 된다. 안전신문고는 도민 누구나 생활 주변의 재난·안전 위험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김재훈 기자

전북국제협력진흥원, 전북도-연해주 온라인 수출상담회

전북국제협력진흥원(원장 김대식)은 도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 판로 개척을 위해 최근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드림스퀘어에서 '전라북도-연해주 온라인 수출상담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2회째를 맞는 전라북도·연해주 기업 수출 상담회는 18개기업과 바이어 등 총 26곳이 온라인으로 참여하여 21건의 상담 건수와 61만 달러의 상담실적을 거뒀다.

이번 온라인 수출상담회는 생활용품, 식품, 화장품 등 분야별 매칭으로 상호 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도내 기업의 수출 판로 확보를 도왔다.

연해주 바이어들은 한류 트렌드에 따라 화장품 품목 등에서 관심을 보였으며, 각 품목의 가격과 품질 등이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큰 관심을 끌었다.

이날 수출상담회에 참여한 바이오텐(주) 김동년 세일즈 매니저는 "러시아로 해외 수출 판로 개척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전라북도-연해주 온라인 수출상담회'로 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다양한 국가와 지속적으로 수출상담회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도내 기업들이 해외 진출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장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전북도 농어업·농어촌위원회 워크숍 개최

150여명 참여… 활동성과 공유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3월 전북도의 새로운 민·관·학 농정거버넌스로써 출범한 전라북도 농어업·농어촌위원회(이하 위원회)가 18일 더 메이 호텔에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행사에는 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장인 노창득 위원장을 비롯해 농업단체, 학계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담당공무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해 농업, 농촌, 축산 등 분야별 주요 논의과제 및 성과를 공유하고 전북특별자치도의 핵심전략과 농업방향에 대해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7개 분과와 현안을 다루는 특별분과(임시) 2개로 구성된 위원회는 올 한해 31회의 회의를 거치며 현장 중심의 2024년 농정 시책 24건을 제안하고 쌀 소비 감소에 따른 쌀산업 육성 방안과 필수농자재 가격상승 대응 정책을 중점 논의했다.

또한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을 위한 농생명산업 포럼을 통해 분야별 전문가의 발제와 다양한 구성원 간의 토론을 진행해 농업 정책을 구체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주요내용으로 △농촌인력 수급 지원계획 △농촌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방안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개선 △식품기업 성장 △스마트 축산 경영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대응 △기후위기 대응 농업구조 전환 등에 대한 토론을 실시했다.

한편, 이날 워크숍에서는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위원회의 김한호(서울대 농경제학부 교수) 위원이 '한국농업과 전라북도' 주제로 농업의 현주소와 대한민국 농생명산업 수도로 거듭나기 전북도의 정책 방향의 강연을 진행했다.

신원식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농정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여러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력으로 신규 사업들이 반영이 되고 현안에 대한 정책 방안 마련의 성과들이 있었다"고 전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도, 특별사법경찰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전북도는 전북지역 특별사법경찰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18일 부안 소노벨 변산에서 '전라북도 특별사법경찰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민생 9대 분야 단속 활동 성과와 단속현장 경험 등 정보교류를 통해 전라북도 특별사법경찰들의 소통 및 역량강화를 위해 처음으로 개최됐으며, 특별사법경찰 및 업무담당자 등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사경 유공 표창, 단속사례 발표, 분야별 토의 등이 진행됐다.

워크숍 참가자들은 단속현장에서의 경험을 공유하고 토론함으로써 다양한 시각과 전문성을 획득하고, 이를 통해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됐다. /김재훈 기자

전북도, 지방세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

도내 체납자 7명 129점 압류

전북도는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도내 지방세 고액체납자 7명의 가택(실거주지)을 수색해 체납액 현장 징수 및 귀금속·가방 등 동산 물품을 압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수색은 도, 시·군 광역징수기동반을 구성해, 가족이나 친·인척 명의의 고가주택에 살면서 재산은닉 가능성이 높은 체납자 7명(체납액 3억 7,900만원)을 사전조사·선정해 진행했다.

일정별로 8일 김제시, 12일 남원시, 13일 전주시, 14일 군산시, 15일 익산시 수색을 진행해 총 현금 1,400만원을 현장 징수, 동산 129점(귀금속 100점, 명품가방 15개, 양주 14병)을 압류했으며, 압류한 물품은 향후 공매처분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에 충당할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1~2월(방학특강) 과정

스피치 · 웃음코칭 · 긴장해소

○ 현대인의 필수과목에 참여하여 보람과 즐거움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① 매주 1회 야간수업 ② 도민 누구나 가능
③ 특강 등록금15만원(2개월분) ④ 전문강사지도

우석대학교 평생교육원
원광대학교 평생교육원
상담전화 : 231 - 6669, 010 - 7304 - 5665

장애인 복지 증진대회 및 송년문화공연

전북장애인복지문제연구소, 전라북도장애인문화예술봉사단에서 합동으로 장애인복지, 인권, 문화예술참여확대를 위해 아래와 같이 제24회 행사를 엽니다. 많은 성원과 참여 바랍니다.

① 일시 : 2023년 12월 22일(금) 오후2시
② 장소 : 전주교육대학교 황학당
③ 주요행사 : 개회식, 물품전달식, 송년문화공연, 행운권추첨 등

문의 : 286 - 6678, 팩스 : 287 - 6676